



지난 6일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‘안전결의대회’를 개최했다. <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제공>

농어공 경주, 중대재해 예방 위한 ‘안전결의대회’

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지난 6일 지사 회의실에서 직원 및 건설현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및 건설현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‘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’를 개최했다.

행사는 공사 및 시공사 직원 합동 안전결의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청렴이행각서 교환으로 청렴한 공사 현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밖에도 안전사고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사 현장 재해율을 저감하기 위한 KSG명인(KRC Safety Guardian) 임

명과 품질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.

박기철 지사장은 CEO 추진 건설현장 5대 안전수칙(①현장 맞춤 TBM(Tool Box Meeting) 실시 ②신규 근로자 현장형 교육 시행 ③건설장비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④개인 안전수칙 위반 단속 철저 ⑤현장 안전표식 적극 설치)을 철저히 이행해 현장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“경주지사도 지속적인 안전 및 품질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”고 강조했다.

김경태 기자